광주시-伊토리노시, 경제·문화·관광 교류협력 확대

수교 140주년 우호협약 체결…20여년 협력 지속

시립미술관-토리노오리엔탈미술관 전시교류 맞손

강기정 시장과 스테파노 로 루쏘 토리노시장이 15일(현지시간)이탈리아 토리노시청에서 '광주시-토리노시우호협력 협정서'에 서명하고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와 토리노시가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 경제 스포츠 분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 상호 발전과 우애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스테파노 로 루쏘 토리노시장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시청에서 '광주-토리노 우호협력 협정서'에 서명했다.

협정식에는 양 시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신수정 위원장과 이귀순·서임석 의원,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 등이 참석했다. 또 현지에서는 강형식 주밀라노 총영사, 이은선 토리노한인회장, 이마누엘 듀란테 한인입양인가족협회장 등도 함께 했다.

광주와 토리노는 도시 규모와 지향점 등이 매우 동일하다. 이는 지난 20여년간 두 도시가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힌다.

토리노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한다. 이들 대부분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등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실제 토리노시에서는 2019년 주로마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 주관으로 '한국주간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많은 토리노 시민이 참가해 양적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질적 측면에서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2021년부터는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됐고, 토리노 공대는 국내 5개 대학과 교류를 확대했다. 이 밖에 제6회 한국-이탈리아 과학포럼 개최, 한국영화 알리기 행사 진행, 이탈리아 한국인 예술가협회 등 한인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스테파노 로 루쏘 토리노시장은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의 오랜 전통과 문화가 토리노에 알려지는 등 양국 관계의 초석이 됐다"며 "강기정 시장을 모시고 광주와 토리노가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대한민국 제2의 자동차 생산도시인 광주는 그 뿌리가 아시아자동차로, 이 회사의 첫 생산 모델이 바로 이곳 토리노에서 만들어진 '피아트 124'"라며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토리노시와 경제·문화예술은 물론 관광·학술·스포츠 등 전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토리노시의 우호협약 체결에 앞서 광주시립미술관과 토리노미술관재단도 협약을 맺고 소장품 상호 대여, 작가·연구자·기획자 레지던시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선강 기자

兩 시장, 안전생명사회 구축 다짐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상호 노란리본 달아줘

강기정 광주시장과 스테파노 로 루쏘 토리노시장은 15일(현지시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두고 함께 추모했다. 이들은 우호협약 체결을 위해 만나 가슴에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서로의 가슴에 달아주며 안전 생명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시장은 로 루쏘 시장에게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 배지를 달아주며 "10년 전 한국에서는 여객선이 침몰해 학생 등 304명이 숨지는 참사가 있었는데 로 루쏘 시장과 토리노 시민들이 세월호 10주기를 함께 추모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에 로 루쏘 시장도 "세월호 10주기 추모를 토리노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토리노시 배지를 강 시장께 달아드렸다"면서 "안전한 토리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청사 1층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국기게양대에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세월호 추모기를 내걸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박선강 기자

女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방식 변경

전남도, 선불형 카드→포인트 충전식 이달 지급

전남도는 16일 "여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지급 방식을 기존 선불식 기프트카드 지급에서 본인 명의 카드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방식은 매년 신규 제작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포인트 사용자들도 카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사용액·잔액·사용 가능 가맹점 조회 등이 어렵다는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협전남본부와 협력해 변경키로 했다. 지급 방식 변경에 따라 사용액, 잔액 등 알림 문자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양시원 기자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의대 설립 공모 응할 것"

金지사, 내일 순천지역 여론 수렴…결과 주목

순천대도 참여 의사 밝히면 공모 급물살 전망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이 전남도의 의대 설립 공모와 관련,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총장은 이날 광주에서 지역 신문·방송·통신 편집·보도국장들과 만나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공)기관에서 공모라는 방식이 그래도 중립적인 것"이라며 공모 참여 방침을 밝혔다.

이어 송 총장은 "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가 최선의 방식이었지만 통합의대가 여의치 않아 안타깝게 됐다"며 "(목포대가) 공모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인 만큼 최선을 다해 공모에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날 만난 김영록 지사가 공모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만들 때 목포대와 순천대 양쪽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공모가 편협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봐 극단적으로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지만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목포대에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송 총장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국립대 의대를 설립하려는데 인구 등 효율성도 중요 요소지만 농촌·섬 등 열악한 의료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전략상 밝힐 수는 없지만 목포대가 의대를 유치하는 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목포대가 참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병운 순천대 총장, 노관규 순천시장, 정병회 순천시의회 의장과의 회동 결과, 순천지역에서도 공모에 응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면 김 지사의 공모 방식 의대 설립 구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정·김다이 기자

토산어종 생산량 74% 급감…道, 지속가능 어업 총력

작년 206t 생산…감소율 전국 평균 5배 육박

올해 112만마리 방류·불법어업 단속 등 조치

지난해 전남지역 토산어종 어로어업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어로어업 생산량은 206t으로 1년 전(804t)보다 74.3%(598t)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어로어업 생산량 감소율(16.2%)의 5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또한 최근 5년(2019-2023년)간 전남 어로어업 생산량 평균(595t)의 36.4%에 불과하다. 전남 내수면 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전국의 35.6%를 차지한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지속적인 수산자원 남획과 어장 환경 변화, 외래어종 유입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강수량 증가로 전남 토산어종 어로어업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과 어업 기반 형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순천 등 16개 시·군, 16개 수역에 뱀장어, 쏘가리, 자라 등 내수면 7개 품종 112만마리를 방류한다.

올해 첫 방류는 지난 11일 순천 등 16개 시·군에서 이뤄졌다. 유관기관,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16개 수역에 건강한 어린 뱀장어 72만마리를 방류했다. 이어 지난 15일 7개 수역에 은어 26만마리를 방류했다.

10월까지 단계적으로 메기, 쏘가리, 동남참게 등 112만마리를 방류하고 방류 수역에 대한 포획 금지 기간 설정, 어구 제한, 불법 어업 단속 등 필요한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전남에서 생산한 우수 수산 종자를 지속 방류해 내수면 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증강,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1) 50%급매 임동 더현대쇼핑몰인근대로변 대지318㎡
5층528㎡ 승강기1 주차6대 급매7억1,800
==========
2) 화순 도곡 원화리 6차선도로변메인
계획관리 5,500㎡ 분할가능(시세50% 급처분)
==========
3) 전일빌딩인접 중심상업지 코너 빌딩
대지804㎡ 7층5,300㎡ 승강기1 주차40
유동인구엄청 급처분68억(융자45억포함)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